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10, No.1, January 31 (2024), pp.711-722
http://dx.doi.org/10.47116/apjcri.2024.01.54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roactive Personality and College Adjustment: The Sequential Mediation of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Satisfaction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

Kyung Rim Won[1]

원경림[1]

[1]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krwon7@nsu.ac.kr*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equential mediating relationships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satisfaction, focusing on improving the post-COVID-19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City C, South Korea. The final analysis included 151 male students (49.5%) and 154 female students (50.5%) who agreed to participate.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utilizing SPSS 25.0 and Hayes' PROCESS Macro version 4.1, model 6,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main variables confirm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proactive personality, career resilience, career satisfaction, and college adjustment. Furthermore, the study revealed tha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college adjustment were significant. These findings underscore that proactive personality is not only a psychological variable that broadly affects career variables such as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satisfaction, but also a key variable that affects college adjustment. Building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al interventions and programs to ultimately enhance college adjustment through the cultivation of a proactive mindset,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satisfaction.

Keywords: College Students, Proactive Personality, Career Resilience, Career Satisfaction, College Adjunstment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 19 페데믹 이후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향성을 위해 자기주도성과 진로탄력성, 진로만족의 순차적 매개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C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는 305명 중 남학생 151명(49.5%), 여학생은 154명(50.5%)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5.0과 Hayes의 PROCESS Macro 4.1의 model 6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 대학생활적응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성

Received: September 30, 2023; 1st Review Result: November 01, 2023; 2nd Review Result: December 05, 2023
Accepted: December 26, 2023

Copyright ⓒ 2024 KCTRS

은 진로 탄력성과 진로만족 등 진로 변인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일 뿐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대학생,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 대학생활적응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학업·관계·심리·사회·진로 등 삶 전반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확장된 대인관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2023년도 시기의 대학생들은 과거와 다른 청년기를 경험하고 있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펜데믹을 선언한 후 펜데믹의 위협이 종결되어 2023년부터 대학교육은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팬데믹 경험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펜데믹 이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정체감·대학생활적응력이 낮은 반면,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1]. 또한, 교수나 선후배 간, 또는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이 원만치 않음에 따라 대학 또는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고 동료간에 유대감도 약해 정체성 형성 뿐 아니라 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2]. 더 나아가 대학생들은 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집중력 약화와 학업스트레스 증가로 학업 성취도는 저하되는 반면 취업불안이 증가되어 진로개발 및 진로구성에서 갈등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3]. 이는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교사나 또래들과 함께 정상적인 수업에 비해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면서 대면 수업에서 혹은 학과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부담감이 대학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학생의 시기에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동기 및 선후배들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고, 전공 및 교양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등 주도적으로 진로를 만들어가야 한다. 대학생활적응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활적응은 자아존중감 같은 자아요인과 학업성취도(허정철, 한지수, 권병국, 한수미, 2023)[4] 같은 학업요인, 대인관계 혹은 대인갈등 관리(최임숙, 2004)[5] 같은 관계요인, 진로결정 효능감 (우영지, 김나래, 2020) [6] 같은 진로 변인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이 요인들 외에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주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성은 개인이 가진 적극적인 성격이나 특성으로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하는 성향이다. Bateman과 Crant(1993)[7]는 자기주도성의 특징과 그와 관련된 업무 성과에 대해 탐구한 결과 전형적인 적극적 성격을 가진 개인은 기회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주도권을 발휘하고, 행동을 취하며,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인내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주도성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고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8]. 자기주도성은 학업, 직업, 창업,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개인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Copyright ⓒ 2024 KCTRS

성공과 성과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9]. 이런 의미에서 자기주도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진로는 단순히 진학이나 취업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개인이 과거-현재-미래를 종합하여 삶 전체를 설계해 가면서 의미를 구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진로는 일의 총체, 생애 역할과 같이 삶 전체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10]. 이런 의미에서 대학생의 대학생활은 현재의 진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동시에 미래의 진로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전처럼 하나의 직업을 정하고, 그 직업의 특징에 개인의 성격이나 흥미, 적성, 능력을 맞추어 직업을 선택하는 단선적 직업 매칭 개념으로 진로를 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관점이 팽배해 있다. 우리 사회는 해고나 실직, 직업전환 등 직업 불안정성과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우연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우연대처능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사회 변화를 수용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진로탄력성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경험하는 환경을 잘 이겨내고 적응적으로 진로를 구성해 가는 개인적 특질로 학습이 가능한 능력이다[11].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서 일어나는 교수 및 또래와의 부정적 관계, 진로 개발 과정에서 부딪치는 진로장벽이나 불확실성에 의한 부정적 영향 등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다(임정섭, 김장회, 2019)[12]. 따라서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진로만족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태도로 자신의 분야에서의 만족감 내지는 성공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관여행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만족이 높아지는데[10], 이러한 진로만족은 삶의 만족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으로 가정되며, 주관적 안녕감과도 관련이 있다[10]. 정미예와 조남근(2011)은 진로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13].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 적 응 에도 만족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진로탄력성, 진로만족이 대학생활적응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자 한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미치는 진로탄력성, 진로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능력 개발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적응력을 향상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proactive personality)은 능동적으로 환견병화를 창출하는 특성 수준의 행동 경향으로, 자기주도성이 높은 사람은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기회를 찾고, 주도권을 발휘하고, 인내하는 경향이 높다[7]. 자기주도성이 높은 사람들은 위기에서도 위축되기보다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회를 찾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고, 외부 환경의 미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자기주도적인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는다[8]. 홍세훈(2023)은 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이 학습상황에서 몰입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Copyright ⓒ 2024 KCTRS

진로결정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성은 구직 성공, 구직 자기효능감, 구직행동, 구직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행동과 구직 노력을 예측하고 있었다. 또한, 주도성은 객관적인 경력 성공과 주관적인 경력 성공 모두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높은 주도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업무수행력이 높다고 하였다[14].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개인과 직장생활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향으로서의 자기주도성은 동기부여 자원 및 강점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자기주도성은 불확실성과 역경에 직면한 의료진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동기부여자원을 확보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더 큰 업무 성과와 웰빙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16].

2.2 진로탄력성

자기주도성은 진로 발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진로관련 자기주도성 연구에 의하면 자기주도성은 진로 탐색, 진로참여에 있어서의 동기부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진로탄력성, 경력성공이나 직무만족 등 진로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이다[16]. 특히 진로탄력성은 예상치 못한 직업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의 특정한 특질로[17],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향상을 꾀하며, 적극적으로 진로관리를 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18].

이러한 진로 탄력성은 현재에 경험하는 진로와 관련된 사건 뿐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탄력 적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진로탄력성은 '진로를 새롭고 유연하게 도전적으로 인식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조아미 외 2019)[19]. 진로탄력성은 외부 환경의 변화와 요구에 자신을 맞출 뿐 아니라 자신의 변화에 맞게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진로적응성과 유사하지만, 개인이 진로장벽이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향과 행동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진로적응성과는 차이가 있다. 즉, 진로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우울, 불안 등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끈기를 보이고 유연한 태도로 미래지향적 도전을 하는 심리사회적 대처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탄력성은 개인의 특성, 기술, 행동, 경험 및 신뢰와 같은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긍정적 가족관계, 부모의 지지, 직장에서의 긍정적 정서 경험에도 영향을 받는다[12][20].

2.3 진로만족

진로만족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태도로 자신의 진로방향과 진로진행 및 자신의 분야에서의 만족감 내지는 성공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스스로 진로관련 발달과업 준비가 되어있다고 느끼고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현재의 진로 상태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구상하며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느낀다면, 그 개인은 자신의 진로방향이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통제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진로나 삶 전반에서 긍정적인

Copyright ⓒ 2024 KCTRS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20].

원경림(2020)[10]은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진로관여행동은 우연 대처 기술에, 우연대처기술은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진로관여행동은 진로를 구성해 감에 있어 자신과 세상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탐색 하고 행동하는 포괄적인 참여행위를 의미하는데 주도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진로관여 행동을 하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우연대처기술을 높인다고 하였다. 우연 사건을 기회로 만드는 특성은 기회를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성이다. 우연대처기술은 진로 탄력성 및 진로적응성을 높임으로써 진로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개발에 미치는 자기주도성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 활동과 업무에 더 몰입함으로써 진로만족은 진로에서 성공을 측정하는 지표로 간주된다[23]. 따라서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에서 학업관련이나 대인관계, 동아리활동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학교나 학과,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애착, 호감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4], 자아정체감[1] 학업성취도, 대학생활만족도[4], 성역할 정체감[5],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릿[6], 긍정심리자본, 감성지능, 소통능력[24], 진로 요인으로 진로결정[6], 대인관계능력[1], 및 대인갈등관리[5]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다. 이 연구들은 대학생활적응의 중요성을 검증한 것으로 대학생활적응이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낮추고, 학업수행능력 향상, 대인 관계, 성공적인 직업선택,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듯 대학생활적응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3년 6월 기준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2023년 6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자발적 연구 참여자 3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회수된 30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미래융합대학, 공과대학, 창조문화예술대학, 글로벌상경대학, 보건의료복지대학에 재학중이고, 남학생은 151명(49.5%), 여학생은 154명(50.5%)이었다. 학년별로 보았을때 1학년 114명(37.4%), 2학년 90명(29.5%), 3학년 51명(16.7%), 4학년 45명(14.8%), 휴학 5명(1.6%)로 나타났다.

3.2 연구도구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Bateman과 Crant(1993)[4]가 개발하고 황애영,

Copyright ⓒ 2024 KCTRS

탁진국(2011) [23]이 수정,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록 점수가 높을수록 주도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황애영, 탁진국(2011)[23] 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α는 .86으로 나타났다.

진로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아미, 진영선, 임정아(2019)[16]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창의성, 유연성, 도전정신, 미래지향성으로 구성되었다. 총 20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탄력성이 높다. 조아미, 진영선, 임정아(2019)[1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α는 .94로 나타났다.

진로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Lounsbury 등(2003)[24]이 개발하고 정미예와 조남근(2012)[10] 이 번안한 진로만족감 문항을 사용하였다. 단일 요인으로 총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식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방향을 명확하게 지각하며 진로 관련 사항에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미예와 조남근(2012)[1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α는 .77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은식(2002)[25]의 학교생활척도를 최임숙(2004)[26]이 수정 보완하고 김혜수(2014)[27]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의적 적응으로 구성되었다. 총 21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김혜수 (2014)[27]의 연구 에서는 .8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α는 .85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25.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으며, 각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29]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분석을 하였다. 각각의 개별 단순매개효과는 Model 4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매개변수를 표함하는 직렬다중매개모형(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은 Model 6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매개효과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표본의 수 5,000개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기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주도성은 진로탄력성($r = .801$, $p < .01$), 진로만족($r = .536$, $p < .01$), 대학생활적응($r = .492$, $p < .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탄력성은 진로만족($r = .574$, $p < .01$), 대학생활적응($r = .516$, $p < .01$)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진로만족과 대학생활적응($r = .487$, $p < .01$)도 정적상관을 보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 에 제시하였다.

Copyright ⓒ 2024 KCTRS

각 변인의 평균을 살펴볼 때 자기주도성이 3.57로 가장 높았고, 대학생활적응이 3.45, 진로만족이 3.4, 진로탄력성이 3.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경우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한 왜도 ±2, 첨도±7의 기준이 충족되었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305)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 (n=305)

변인	1	2	3	4
1.자기주도성	·			
2.진로탄력성	.801**	·		
3.진로만족	.536**	.574**	·	
4.대학생활적응	.492**	.516**	.487**	·
평균(*M*)	3.57	3.36	3.40	3.45
표준편차(*SD*)	.61	.68	.93	.50
첨도	-.27	-.20	-.61	.05
왜도	.20	.30	.06	.23

** p<.01

4.2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

첫째,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자기주도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β = .176, p < .01), 진로탄력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β = .250, p < .001) 진로탄력성이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였다. 또한,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총 효과는 β = .397(p < .001)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진로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진로스트레스에서 대학생활적응 간 경로의 직접 효과가 β = .176(p < .01)으로 감소하여 자기주도성이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95% 신뢰 구간에서 LLCI와 ULCI가 각각 .1152, .3174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진로만족이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마찬가지로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주도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β = .262, p < .001), 진로만족은 대학생확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69, p < .001). 또한,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총 효과는 β = 397(p < .001) 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진로만족이 투입되면서 자기주도성에서 대학생활적응 간 경로의 직접효과는 감소하였다(β = 262, p < .001). 이는 자기주도성과 마찬가지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LLCI는 .0804이고, ULCI는 .1973으로 0을 포함 하지 않았다. 이는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의 최종적인 연구가설인 직렬다중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Copyright ⓒ 2024 KCTRS

PROCESS MACRO Model 6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주도성은 진로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 = .883, p < .001). 진로탄력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ß = .171, p < .01). 둘째, 자기주도성은 진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 = .319, p < .01), 진로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143, p < .001). 셋째, 궁극적으로 자기주도성에서 대학생활적응 간 경로의 총 효과는 β = .397(p < .001)였으나 매개변수인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이 투입되면서 자기주도성에서 대학생활적응 간 경로의 직접효과는 β = .131(p < .05)로 감소하였다.

간접효과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자기주도성에서 대학생활적응 으로 이어지는 총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LLCI와 ULCI가 각각 .1554와 .3748로 나타났다. 즉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세부적 경로의 간접효과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자기주도성→진로탄력성→ 진로만족→ 대학생활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간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5% LLCI:.0318, ULCI:.1214]. 결과는 [표 3]과 같고 최종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표 2] 다중매개효과 검증(n=305)

[Table 2] Verification of Indirect Effects of Relationships

경로			*β*	*SE*	*t*	*LLCI*	*ULCI*
자기주도성	→	진로탄력성	.8827	.0379	23.2980***	.8081	.9572
자기주도성	→	진로만족	.3187	.1174	2.7146**	.0877	.5497
진로탄력성	→	진로만족	.5551	.1066	5.2100***	.3455	.7648
자기주도성	→	대학생활적응	.1310	.0645	2.0324*	.0042	.2579
진로탄력성	→	대학생활적응	.1712	.0604	2.8372**	.0525	.2900
진로만족	→	대학생활적응	.1425	.0312	4.5654***	.0811	.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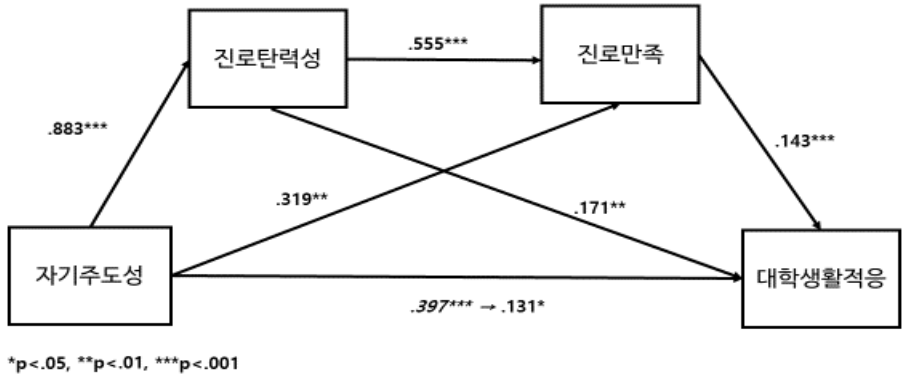
*p05, ** p<.01, *** p<.001

[표 3]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n=305)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Relatedness Between Occupational Engagement and the Happenstance Coping Skill

경로	***β***	*SE*	95% *CI*	
			LL	*UL*
자기주도성→진로탄력성→대학생활적응	.1511	.0500	.0474	.2451
자기주도성→진로만족→대학생활적응	.0454	.0214	.0072	.0898
자기주도성→진로탄력성→진로만족→대학생활적응	.0698	.0226	.0318	.1214
총 간접효과	.2664	.0557	.1554	.3748

Copyright ⓒ 2024 KCTRS



[그림 1]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의 이중매개효과

[Fig. 1]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edness Between Occupational Engagement and Happenstance Coping Skill

5. 논의 및 결과

본 연구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스트레스,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대학생활 적응 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서 자기주도성과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변인인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 대학생활적응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자기주도성이 높은 수준은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로관리를 해 나가는 진로탄력성의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진로만족의 수준은 대학생활적응의 높은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진로탄력성, 진로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최지은, 조용선(2020)[13], 임점섭, 김장회(2019)[9]의 결과와 같다.

둘째,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의 자기주도성이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13],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진로탄력성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한다[30]. 이는 진로탄력성이 자기주도성과 대학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자기주도성과 진로 개발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극복하는 진로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기주도성은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을 순차적으로 거쳐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진로 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만족이 높으며, 진로에 만족 할수록 대학 생활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Copyright ⓒ 2024 KCTRS

본 연구와 동일한 설계로 연구를 진행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러한 결과는 정미예, 조남근(2011)[13]과 황애영, 탁진국 (2011)[25]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자기주도성은 진로 관련 변인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일 뿐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자기주도성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기주도성을 함양하는 다양한 개입 및 지원방법을 통해 창의성, 유연성, 도전정신, 미래지향성을 나타내는 진로탄력성을 향상킴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 만족은 개인에게 중요한 모든 차원에 걸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개인 내적 인식과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이나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갖는 것이다. 자신의 진로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적응력이 높아지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의 정도에 대하여 면밀한 관심을 갖고, 자기주도성 및 진로탄력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과과정 및 연계 프로그램의 연계·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성이 선행되었을 때 진로탄력성이 높아지며, 높은 진로탄력성은 진로만족감을 높임으로써 대학생활적응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 연구에서 적용 빚도가 낮았던 자기주도성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탄력성과 진로 만족의 중요성을 확인함 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대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를 여러 지역의 대학생을 포함하여 종단적 설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애정을 갖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자기주도성 프로그램과 진로프로그램 증가와 함께 집단상담 내지는 그룹코칭 활성화 등 대학의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제언한다.

6.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2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Y. H. Cho,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Interpersonal Relation, Academic Stress, Ego Identity,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23), Vol.17, No.1, pp.225-233.
DOI:10.21184/jkeia.2023.1.17.1.225

[2] K. R. Won, E. S. Park,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Occupational Engagement on Happenstance Coping Skill and Mediating Effects of Relatedness,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2023), Vol.9, No.1, pp.341-352.
DOI: 10.47116/apjcri.2023.01.28

[3] S. H. Hong, Effect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on Quality of Life among Nursing Students

Copyright ⓒ 2024 KCTRS

Experiencing a Pandemic,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3), Vol.23, No.1, pp.365-375.
DOI: 10.22251/jlcci.2023.23.1.365

[4] J. C. Heo, J. S. Han, B. G. Kwon, S. M. Ha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n Adjustment to College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2023), Vol.14, No.3, pp.1621-1636.
DOI: 10.22143/HSS21.14.3.112

[5] I. S. Choe, The Effects of Sex-Role Identity upon Interpersonal Conflict Management and School Adjustment Behavior, Chungnam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pp.1-120, (2004)

[6] Y. J. Woo, N. R. Kim,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djustment to Colleg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Vol.20, No.7, pp.657-674.
DOI: 10.22251/jlcci.2020.20.7.657

[7] T. S. Bateman, J. M. Crant, The Proactive Compon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A Measure and Correlate, Journal of Organizations Behavior, (1993), Vol.14, No.2, pp.103-118.
DOI: 10.1002/job.4030140202

[8] K. Strauss, S. K. Parker, Effective and Sustained Proactivity in the Workplac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The Oxford Handbook of Work Engagement,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Publisher: Oxford University Press, Editors: Marylène Gagné, (2014)

[9] S. K. Parker, C. G. Collins, Taking stock: Integrating and Differentiating Multiple Proactive Behaviors, Journal of Management, (2010), Vol.36, No.3, pp. 633-662.
DOI: 10.1177/0149206308321554

[10] K. R. Won, Occupational Engagement and Career Satisfaction: Happenstance Coping Skill and Career Adaptability as Sequential Mediators,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2020), Vol.13, No.6, pp.101-121.
DOI:10.20325/KCA.2020.13.6.101

[11] H. S. Yoo, A Theoretical Review on the Concepts of Career Resilience and the Implications for Adult Career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3), Vol.14, No.1, pp.423-439.
DOI: 10.15703/kjc.14.1.201302.423

[12] J. S. Lim, J. H.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areer Support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Journal of Transactional Analysis & Counseling, (2019), Vol.9, No.1, pp.131-147.
DOI: 10.35476/taca.2019.9.1.131

[13] M. Y. Jung, N. K. Cho, A Structural Model of Career Satisfaction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1), Vol.18, No.10, pp.295-316.
UCI: G704-000387.2011.18.10.005

[14] D. J. Brown, R. T. Cober, K. Kane, P. E. Levy, J. Shalhoop, Proactive Personality and the Successful Job Search: A Field Investigation with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2006), Vol.91, No.3, pp.717-726.
DOI: 10.1037/0021-9010.91.3.717

[15] N. Yi-Feng Chen, J. M. Crant, N. Wang, Y. Kou, Y. Qin, J. Yu, R. Sun, When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The Role of Proactive Personality in Combating COVID-19,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2021), Vol.106, No.2, pp.199-213.
DOI: 10.1037/apl0000865

[16] J. E. Choi, Y. S. Cho, Study on Research Trend of Career Proactive Personal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 Vol.21, No.16, pp.509-524.
DOI: 10.22251/jlcci.2021.21.16.509

[17] M. London,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997), Vol.24, No.1, pp.25-38.
DOI: 10.1177/089484539702400102

[18] R. R. Rickwood, Enabling high-risk clients; Exploring a career resiliency model, NATCON papers (2002), Les actes du CONAT, pp.1-8.

Copyright ⓒ 2024 KCTRS

[19] A-mi Cho, Y. S. Jin, J. A. Lim, The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Career Resilience Scale, The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Career Resilience Scal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2019), Vol.16, No.2, pp.65-81.
DOI: 10.34244/JFOYS.2019.16.2.65

[20] S. H. Lim, Y. G. Lee, Meta-Analysis on Antecedence and Consequence Variables of Career Resili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0), Vol.33, No.1, pp.131-157.
DOI: 10.32341/JCER.2020.03.33.1.131

[21] R. D. Duffy, B. J. Dik, Beyond the self: External Influences in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2009), Vol.58, No.1, pp.29-43.
DOI: 10.1002/j.2161-0045.2009.tb00171.x

[22] G. B.Cunningham, M. Sagas, M. Dixon, A. Kent, B. A. Turner, Anticipated Career Satisfaction, Affective Occupational Commitment, and Intentions to Enter the Sport Management Professio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005), Vol.19, No.1, pp.43-57.
DOI: 10.1123/jsm.19.1.43

[23] B. R. Cho, Domestic Research Trends Related to University Freshman's Adaptation to School Lif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3), Vol.23, No.8, pp.15-25.
DOI: 10.22251/jlcci.2023.23.8.15

[24] H. S. Jang, M. J. Lee,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 (2023), Vol.22, No.1, pp.83-124.
DOI: 10.51652/ksmca.2023.22.1.3

[25] A. Y. Hwang, J. K. Tak, A Relation of Proactive Personality to Career Success: A Mediating Role of Protean Career,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11), Vol.24, No.2, pp.409-428.

[26] J. W. Lounsbury, J. M. Loveland, E. D. Sundstrom, L. W. Gibson, A. W. Drost, F. L. Hamrick, An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 to career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03), Vol.11, No.3, pp.287-307.
DOI: 10.1177/1069072703254501

[27] E. S. Moon,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pp.1-120, (2002)

[28] H. S.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 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Life Satisfaction, Seonam University, Master Thesis, pp.1-80, (2014)

[29]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2013)

[30] S. H. Park, The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 of Out-of-School Adolescents' Self-Directedness, Family Strengths,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aegu Haany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pp.1-114, (2022)

Copyright ⓒ 2024 KCTRS